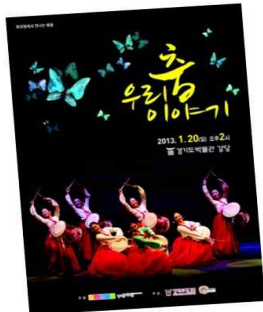


다들무용단 우리춤 이야기 공연
우리 전통춤 이해할 수 있게 대중화 해

2011년 11월 16일 (수) 16:14:29

가평저널 gpn2011@naver.com



오는 20일 2시, 경기도박물관 강당에서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이 '유지업에서 만나는 예술-우리 춤 이야기'라는 주제로 새해 첫 공연을 갖는다.

그들의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은 가평 지역의 유일한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 회사의 설립목표에 따라 2012년 한 해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도내 각 지역을 찾아가며 5-60여회가 넘는 공연을 통해 전통문화의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연은 총 7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시간 동안 꾸며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에는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우리 전통춤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중화시킨 퓨전국악 & 퓨전 타악을 볼 수 있다.

진수영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 대표는 '2013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문화예술융합공간의 중심인 경기도 박물관에서 우리 전통문화가 관객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공연이다.'라고 공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박물관,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이 주관하는 이번 '유지업에서 만나는 예술-우리 춤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의 원초애매이 담긴 춤을 느끼고 그 속에 녹아있는 정신을 느끼고자, 시공간을 초월한 세대 공감의 시간과 2012년을 시작하는 힘찬 기운을 전달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가평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가평저널(<http://www.gpn.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가평(aptimes@chol.com)

4도움+인도

춤, 노래, 연기로 풀어내는 사랑의 이야기

[2012-10-25 오후 12:02:00]



자라목에 열린 설화를 바탕으로 한 가무악극 "자라목이야기"가 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는 11월 10일 열린다.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은 가평지역 유일한 전문예술법인단체(제2008-7호)로서 가평군민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가평에 좋은 이야기들을 소개하고자 작품을 제작해왔다.

이번 공연 '자라목 이야기'는 '호명산 법인', '열매지의 불꽃'에 이어 가평의 설화를 산과 보릿산의 정성인 일명 자라목이라 불리지는 곳에 절도를 간성했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춤과 노래와 연기가 총 망라된 가무악극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극중 배우를 통해 이야기의 전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관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진행되어 극의 재미를 더해줄 것이다.

이번 공연은 가평군이 주최하고 가평문화예술회관과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이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의회, (주)우미술이 후원한다. 우리 동네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의 공연을 통해 함께 하는 것 어떨까?

■ 공연일시 : 2012. 11. 10(토), 오후 3시 / 7시(2회 공연)
장소 : 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 문화관광과(031-580-2061) / 청평문화예술학교 031-584-8980
티켓요금 : 2012. 11. 1
티켓예매 : 가평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
가평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www.gpfnc.or.kr>
관람대상 : 전체 관람가
관람료 : 3,000원
-자라목(출내 8인)-

흔내 8리는 늘산과 보릿산을 하고 죽에서다. 강원도 남서면 쪽에서 바라보면 꼭 자라가 자라의 죽처럼 떠오르는 형국을 하고 있으며, 현재 경춘국도와 철도가 지나가는 고봉했다고 한다.
경춘선은 1939년 일제강점기 시절 군수봉자를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본사람들이 가평읍의 경기를 자라로 이끄를 결단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가평(aptimes@chol.com)

가평타임즈 & 가평뉴스방송의 콘텐츠 및 전반에 걸친 사진 및 기사 등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기사의 댓글은 회원들 가입한 후에 작성 가능합니다. 제보 : 581-1110, 584-8199

가평(aptimes@chol.com)

2012 첫 정기공연 '하늘의 소리 땅의 품짓'
[2012-06-05 오후 2:54:00]



우리의 전통 춤과 타악기가 어우러진 신명나는 무대가 오는 16일(토) 가평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대표 진수영)의 '하늘의 소리 땅의 품짓' 공연은 전통 타악기로 구성된 음악과 전통춤의 조화로 우리 고유의 철학과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본 공연은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우리의 다양한 전통 타악기가 한 자리에 모여 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 가평을 중심으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며 활동하는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은 매년 창작작품이 포함된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 찾아가는 문화공연 또한 가평군 주민들에게 예술문화의 감을 넓혀주고 있다. 이번 공연을 찾아오는 관객들에게도 우리의 전통예술혼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평군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과 가평문화예술회관,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이 주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경기문화재단, 메세나협의회, 우리춤 및 전통문화지원센터가 후원한다. [기사 재보 청평문화예술학교]

가평(aptimes@chol.com)

가평타임즈 & 가평뉴스방송의 콘텐츠 및 전반에 걸친 사진 및 기사 등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기사의 댓글은 회원들 가입한 후에 작성 가능합니다. 제보 : 581-1110, 584-8199

가평(aptimes@chol.com)

향단이가 전하는 우리춤 동두천에서...

[2012-07-04 오후 2:27:00]



청평문화예술학교 다들무용단(대표 진수영)의 '향단이가 전하는 우리 춤 이야기'가 7월 5일 동두천 통일포실버센터로 시작으로 순회공연을 갖는다.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 우리 춤, 우리가락을 선보이고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전하며 각 지역민들과의 문화적 소통을 이루고 있다.
2012 사회적응문화순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향단이가 전하는 우리 춤 이야기'는 도내는 물론 서울, 강원, 전남, 경남, 광주 등 문화예술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전국 곳곳을 찾아갈 예정이다.
전통 화려토리, 퓨전국악, 퓨전타악, 창작 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공연은 화려한 볼거리와 즐거운 리듬으로 각 지역에 신명나는 문화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진수영 청평문화예술학교 대표는 '이번 순회공연은 도내의 문화소외지역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혜택이 거의 닿지 않는 작은 섬 지역 주민들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라 더욱 뜻 깊은 공연이 될 것 같다. 도내 가까운 곳에도 문화예술 인포라가 부족한 곳이 많이 있지만 섬 지역은 문화예술을 볼 기회가 어렵다. 청평문화예술학교-다들무용단은 이런 지역들을 유선으로 찾아가 지역적, 경제적 한계를 넘어나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응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발로 뛸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2012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과 청평문화예술학교가 주관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하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후원한다. 가평(aptimes@chol.com)

가평(aptimes@chol.com)

가평타임즈 & 가평뉴스방송의 콘텐츠 및 전반에 걸친 사진 및 기사 등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기사의 댓글은 회원들 가입한 후에 작성 가능합니다. 제보 : 581-1110, 584-8199

가평(aptimes@chol.com)

